살게라스의 무덤

로버트 브룩스

제 1 부: 다른 자의 운명

거의 모든 함선이 파괴됐다. 잿더미가 되었다.

오래 전 로데론에서 제작된 늑골은 해저에 내려앉아 잠들었다. 함선의 승객과 선원들의 유해도 마찬가지였다. 타버린 나무와 천 조각들만 수면 위를 떠돌았다. 계속해서 타오르는 초록색 불씨가 너울 아래에서 지글거렸다.

몇 시간이고 불탈 것이다. 지옥불은 물 따위로는 꺼지지 않으니까.

잔해가 검은 바위 해안에 밀려 올라왔다. 누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건조하고 창백한 피부는 종기로 뒤덮여 고름이 흘렀다. 그자는 휘청거리며 물가로 다가가 잔해를 뒤적였다.

그리고 불에 그슬린 판자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다. 혓바닥이 밀려나와 불씨를 핥자, 불꽃이 튀더니 칙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 녹색 눈을 빛내며 그는 웃었다.

"더... 더 필요해..."

지금껏 지옥의 맛을 본 적은 없었다. 남쪽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그를 불렀다. 비틀거리며 계속해서 해안을 따라갔다. 감시자의 영토에 들어서고 싶진 않았다.

하루도 욕구가 들끓지 않는 날은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라마르에 당당히 서서 마음껏 마력을 들이키던 기억...

... 추방당하기 전 나날들...

... 모두 한 순간 사라지는 환상이었다. 좋았다. 사라지는 편이 더 나을 테니까.

수라마르는 필요치 않았다. 필요한 건 힘뿐이었다. 벌써 며칠 째 아무것도 섭취하지 못했다. 불씨 한 조각이 전부였다. 이제 여기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그와 같은 자들은 너무 많았다. 하지만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는 난파선이 더 있고, 거기엔 새로운 전리품도 있을 것이다. 멀지 않다. 그래서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지친 몸은 무시하며, 마음을 긁어대는 무언가를 향해 다가갔다.

다른 이들도 거기 이끌렸을 것이다.

"그건 내 거야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제 가까운 곳에서, 해안에서 그를 부르고 있었다.

저기다.

사체 한 구가 바위 위에 엎드린 채 파도에 조금씩 흔들렸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놀랍도록 강력한 존재였다. 육신은 죽었지만 마력만은 또 하나의 태양처럼 빛났다.

그 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기꺼이 삼켜 주겠다.

그는 서두르다가 넘어졌지만, 손과 무릎으로 기었다. 멀리서 격분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자들도 도착했다. 그들도 포식을 할 것이다. 모두가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했지만 그가 첫 번째였다.

그는 사체의 검은 망토를 들췄다. 오크. 피부는 초록색이었다. 암흑 마법이 고동치고,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강력한 오라는 본 적이 없었다. 이 힘만 있으면...

며칠? 몇 주? 아니,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그는 사체 위에서 손을 저으며 막강한 광휘를 조금 맛봤다. 강렬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그는 깊이 들이마셨다.

마력이 느껴졌다. 불이, 힘이 느껴졌다.

고통이... 느껴졌다. 사체의 초록색 손이 그의 목을 짓누르는 게 느껴졌다.

공포가 느껴졌다. 오크는 서 있었다. 사체가 아니었다. 살아 있었다. 빛나는 붉은 눈이 그의 눈을 들여다봤다. "나는 그 힘의 대가를 치렀지만... 너는 아니다." 오크의 두 눈이 가늘어지고, 입술은 뒤틀려 미소가 되었다. "그래도 실컷 마셔 봐라."

추방자는 비명을 질렀다. 타락한 지옥 마력의 격류가 정신으로 밀려들었다. 그는 마법을 마시고 살았지만 지금은 익사하는 중이었다. 초록색 불길의 끝없는 바다에 짓눌려 질식했다. 온몸을 가득 채운 마력이 계속 밀려들었다.

그러나 한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크의 마법도, 그의 힘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고갈되었다. 공허와 고통만이 남았다.

심장이 서서히 멎어가는 동안, 그는 그런 힘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생각했다.

굴단은 손짓만으로 그 비참한 생물의 목숨을 없앴다. 그자는 이제 바위 위의 축축한 얼룩으로 남았다. 엘프처럼 보였지만, 드레노어를 침략한 자들과는 달랐다. 그것들은 이렇게 병약해 보이지 않았다. "이자는 뭡니까?" 굴단은 주인에게 물었다.

—나이트폴른. 수라마르의 추방자다.—

주위에서 다른 자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멀리 가진 못했다. 굴단이 두 손을 들어 올리자, 잠시 후 나이트폴른은 모두 제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말라비틀어진 껍질만 남았다. 초록색 안개가 그들의 사체에서 휘돌다가 굴단의 손으로 다가왔고, 이내 그에게 흡수되었다.

굴단은 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머리카락도 한 올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지쳤지만 만족감은 그보다 훨씬 깊었다. 다시 포식자가 되니 기분이 좋았다. 비록 잠시뿐이겠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노출된 해안에서 벗어났다. 추적자들을 도와 줄 필요는 없었다. 그는 쉬지 않고 내륙으로 이동한 후, 말라비틀어진 나무와 바위들 사이에 숨었다.

굴단은 잠시 숨을 돌리며 물었다. "여기가 그곳입니까? 부서진 섬입니까?"

—그래. 계속 가라.—

굴단은 킬제덴의 목소리가 머리를 가득 채우고 울리는 게 싫었다. 그가 이 세계에 들어온 직후부터 그 목소리가 정신을 뒤덮었고, 한 순간도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

굴단은 바위에 기대 앉았다. 불타는 군단과 맹약을 맺으며 그는 힘을 얻었지만, 육체는 여전히 뒤틀리고 곱아 있었다. 필멸자의 육신은 지금도 연약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대마법사는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굴단은 육체의 힘만 이용하여 해안까지 헤엄치느라 죽을 위기를 넘겼다. 카드가가 불타는 상선에서 나온 지옥 마력을 단 한 조각이라도 감지했다면... 다행히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굴단은 지금 서 있을 힘도 없었다. "잠깐이면 됩니다."

—안 돼.—

굴단은 가만히 앉아 숨을 골랐다.

—날 거역하느냐?—

오크는 쇳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새 세계로 건너와, 함선을 훔치고, 낯선 해안을 항해하며, 끈질긴 추적자를 피해 왔던 그였다. 목소리에서 분노를 감출 수는 없었다. "내 충성심은 이미 일천 번도 더 증명했습니다."

—넌 거듭 실패했을 뿐이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어.—

굴단은 지친 몸을 애써 무시하며 일어섰다. *실패했다고? 내가?* 그 생각은 감췄다. 그는 자기 몫의 약속을 지켰다. *군단이* 실패했다. 군단의 계획은 모조리 엉망이 되었다. 일천 세계를 파괴한 만노로스도 매복 공격에 휘말려 죽고 말았다. 아킨둔과 그 안의 막강한 힘은 오직 한 순간만 그들의 손 안에 있었다.

아키몬드조차 쓰러졌다.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다. *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야 하지?* 굴단은 그 의문을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었다. 아주 깊이 감췄다.

"그렇다면 어디로 갑니까?" 굴단의 목소리는 죽음처럼 차가웠다.

— 네 걸음을 되짚어라.—

굴단은 바다를 돌아봤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넌 전에 이 섬에 와본 적이 있다. 수십 년 전이다. 모르겠느냐?—

"그건 내가 아닙니다." 굴단이 말했다. 차가운 불안감의 덩어리가 뱃속에 들어앉았다. 굴단이라는 존재가 이미 이 다른 시간의 길에서 살고 또 죽었다.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린 같지 않습니다."

— 같지 않다면 쓸모가 없다. 북쪽으로 가라.—

거역은 불가능했다. 아직은 아니다. 굴단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탐지의 신호는 없는지 느끼면서. 대마법사 카드가가 이미 이 섬에서 수색을 시작했을 것이다. 나이트폴른 청소부들이 주위를 누볐지만, 모두 흑마법사의 악의를 감지하고는 부리나케 달아났다. 많은 나이트폴른이 해안에 수십 년째 늘어서 있는 난파선의 잔해에 숨어 살았다. 굴단은 기뻤다. 그걸 모두 조사하려면 카드가도 고생 깨나 할 터였다. 까마귀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독수리가 몇 마리 날았다. 지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여기서 다른... 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씁쓸한 질문이었지만 알아야 했다. 드레노어에서 그가 포획했던 불운한 얼라이언스와 호드 병사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건, 이 시간의 길에서는 굴단이 첫 번째 호드를 전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결국 그는 패배하고 죽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건 굴단이 눈에 띄지 않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인지도 몰랐다. 전할 가치가 없는 죽음... 그건 만족스럽지 않았다.

— 네가 탈드라나스라는 섬을 바다 속에서 끌어냈다.—

"당신의 명령이었습니까?" 굴단이 물었다.

— 질문을 하라고 여기 온 게 아니다. 그 섬을 다시 뒤지는 게 네 일이다. 갈 길이 멀다. 움직여.—

굴단의 생각은 계속해서 위험한 물살에서 소용돌이쳤다. *여기엔 뭔가 강력한 것이 있어.* 그게 아니라면 킬제덴이 모든 것을 감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자의 말에 따라야 하지만, 신뢰할 필요는 없어.* 굴단은 그렇게 결심했다. 킬제덴이 "기만자"인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 섬에 뭐가 있는진 물어봐도 됩니까?"

— 살게라스의 무덤이다.—

그 순간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독수리들이 멀어지고, 쥐도 쥐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뭔가 오고 있었다. 굴단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기다렸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는 지옥의 힘을 몸에 둘렀다. 간단하지만 유용한 능력이었다. 이러면 두 걸음 이상 떨어진 존재는 굴단을 보지 못했다. 그보다 가까이 다가오는 자는 물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굴단은 두 눈을 크게 떴지만 마음은 바삐 움직였다. "살게라스의 무덤? 그가 죽었습니까?"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 넌 아무것도 모른다.—

킬제덴은 지금껏 굴단의 여러 질문에 그렇게 답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굴단은 안절부절못했다.

누군가 바위 사이에서 움직였다.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느낌이 왔다.

흐릿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망토를 걸친 형체가 조용한 걸음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지만 자갈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여자의 형체가 빛 속으로 들어섰다. 둥글게 휜 칼과 에메랄드빛 방어구가 반짝였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자신감과 목적의식이 넘쳤다. 투구 아래로 피부는 한 점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위 상황을 살피는 데는 문제가 없는 모양이었다.

굴단은 미소를 지었다. 콜다나 펠송도 그와 비슷한 차림새였다. *감시자인가? 여기에? 흥미롭군.*

나타난 여자를 공격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북쪽을 향해 움직였다. 굴단은 그 뒤를 따랐다. 적은 하나가 아닐 것이다. 나이트폴른은 약했고, 그 생명의 정수도 굴단에게 힘이 되지 못했다. 감시자의 영혼이라면 수집할 가치가 있다.

킬제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아, 그래... 그의 주인이 작은 자유를 *허락한다고* 생각하니 굴단의 자부심이 뜨겁게 부풀어 *활활 타올랐다*.

서둘러 감시자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마법이 감춰 주었다. 상대가 몇 차례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굴단은 두 번이나 멈춰서야 했다. 감시자는 결국엔 원래 방향으로 돌아왔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눈치였다. 굴단일까?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굴단을 혼자서 뒤쫓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 카드가조차 먼저 동맹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가.

곧 감시자는 절벽의 모퉁이를 돌아 평탄한 고지에 올라섰다. 다른 감시자 대여섯 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

그래...

굴단은 어둠에 묻혀 기다렸다. 뒤쫓은 감시자가 다른 자들과 합류하는 동안 조용히 힘을 모았다. 그들의 대화가 얼핏 들렸다.

"... 죽은 나이트폴른이..."

"... 난파된 배가 수평선에..."

"...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섀도송 님."

굴단은 그들을 바라봤다.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어디서...? 아, 그래. 마이에브 섀도송. 콜다나의 지휘관이었다. 콜다나가 공포에 질려 얘기했었다. *제가 배신했다는 걸 마이에브가 알면, 일리단처럼 빠른 최후를 맞이하길 빌어야 할 겁니다.*

굴단이 지금 마이에브를 죽일 수 있다면, 걱정해야 할 위험 요소가 하나 줄어든다.

그는 맹렬한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준비를 했다. 적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 굴단이 여기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니까. 그는 두 손을 들고—

—숨어라.—

킬제덴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머리를 울렸다. 그 막대한 힘에 굴단은 쓰러질 뻔했다. 그는 공격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고 손을 내렸다. "왜...?"

그러자 소리가 들렸다.

까마귀의 울음 소리가 고지를 갈랐다.

굴단은 즉시 공격을 해제하고, 눈치챈 자가 없기만을 바랐다. 위를 올려다보자, 까마귀가 강하하는 게 보였다. 잠시 동안 굴단은 자신이 들킨 줄 알았다.

하지만 까마귀는 그저 고지 위를 두 차례 빙빙 돌더니, 감시자들을 향해 내려섰다. 그들도 다가오는 까마귀를 바라봤고, 눈 깜짝할 새, 까마귀는 모습을 바꿨다. 그 자리에 선 남자는 당당하게 걸었다.

굴단의 두 눈이 타올랐다. 악문 이는 아플 지경이었다.

"안녕하시오, 마이에브." 카드가가 어깨에 붙은 깃털을 털어내며 말했다.

"대마법사, 널 부른 기억은 없는데." 감시자의 지도자가 차갑게 말했다.

"그 전설적인 매력은 그대로군." 카드가는 그렇게 대답한 후, 그녀 곁으로 다가가 엿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굴단은 욕설을 뱉었다. "이 멍청한 짓을 당장 끝내겠어."

—그들은 상관 없다. 떠나라.—

"전부 죽일 수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복종해라, 굴단.—

카드가가 여기 있었다. 잠깐이면 된다.

그 순간, 굴단은 반역을 고려했다. 불타는 군단에 예속되면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받아들였다. 그 대가로 막대한 힘을 받았다.

하지만 꼭두각시가 되려고 맹약을 맺은 건 아니다.

그는 이미 맹목적인 복종을 할 *다른 자들을* 바쳤다. 그롬마쉬 헬스크림의 멍청한 아들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더 많이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굴단의 운명이 아니었다. 그는 군단을 위해 여러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었다. 봉사하는 것이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다. *군단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맹약은 이미 깨졌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반역은 죽음을 의미했다. 사방이 적이었다. 이 기이한 세계가 그와 대적했다. 굴단은 군단이 자신에게 어떤 힘을 주려는 건지 알지 못했다. 킬제덴이 너무 긴밀히 그를 통제했기에, 그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굴단은 순종적인 애완동물이 되기로 했다. "당신을 섬깁니다, 킬제덴이여." 그는 서서히 물러났다.

—네 목적지는 동쪽이다. 만을 가로지를 방법을 찾아라. 수라마르를 걸어서 지나갈 시간은 없어.—

굴단에게 생각이 있었다. 그는 카드가와 감시자들 곁을 떠나 동쪽 해안으로 돌아갔다. 얼라이언스 표식이 남은 난파선 한 척에, 작은 배가 썩어가는 밧줄 하나로 난파선에 묶여 있었다. 강하게 당기자 배가 떨어져 나와 부드러운 파도에 몸을 실었다. 굴단은 노를 저어 본 적이 없었지만, 간단한 일이었고 멀리 갈 필요도 없었다. 곧 굴단과 해안, 그리고 카드가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자, 그는 노를 내려놓고 더 손쉬운 방법으로 배를 앞으로 움직였다. 배가 지나간 자리가 암녹색으로 빛났다. 물고기가 몸을 뒤집은 채 떠오르기도 했다.

킬제덴은 계속 굴단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했고,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굴단의 목적지가 수평선 위에 드러났다. 그 평탄한 섬에는 기이한 구조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구조물이 위압적으로 굴단을 내려다 봤다. 기념비. 약속. 구조물의 중요성을 상징하듯 첨탑과 삐죽삐죽한 보루가 서 있었다. 그걸 깨서 열려면 강철 호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맹렬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을 것만 같았다.

어째서 이런 장소가 버려진 걸까? 이미 다 끝나 버린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킬제덴이 굴단을 여기로 이끈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뭔지 모른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가까이 다가가자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이 섬은 *익숙했다.* 풍경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 퍼져 나오는 무언가가 그랬다. 수십 년 전 자신의 힘의 흔적, *다른* 굴단의 힘이 남아 있었다. 굴단은 자신이 이곳에 와본 적이 있음을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

배를 으스스한 해안으로 끌어 올리자 썩어 있던 선체가 부서져 조각났다. 굴단이 수수께끼의 무덤까지 걸어 가자, 누군진 몰라도 그 입구를 봉인한 자의 낯선 마법이 느껴졌다. 마법이 부여된 금속과 돌로 만든 물리적인 방벽뿐 아니라, 일련의 감춰진 비전 자물쇠와 문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아주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굴단은 지옥 마법으로 복잡한 문양을 그리며, 손쉽게 각각의 장애물을 해체했다.

"안엔 뭐가 있습니까? 경비병? 함정?" 굴단이 물었다.

—네 목적이다.—

굴단은 움직임을 멈췄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다. "뭘 시키려는 겁니까?"

—네가 우리의 길을 열 것이다.—

이해할 수 없었다. "드레노어에서도 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만, 모두 부질없었다.

—거기서 너는 스스로 길을 열려고 했다. 여기서 넌 열쇠만 돌릴 뿐이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되리라.—

방벽이 또 하나 사라졌다. 이번엔 함정도 붙어 있었다. 화염과 비전의 힘이 주입된 수십 개의 창이 굴단을 향해 날아왔다. 그가 손을 내젓자 창은 모두 사라졌다.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이건 다른 굴단이 하려던 일이었겠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는 거칠게 말했다.

—지켜 보겠다.—

"그는 왜 실패했습니까?"

—배신했다.—

굴단은 기만자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드레노어처럼 여기에서도, 군단이 실패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번씩이나 날 여기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안에 잠든 강력한 무언가 때문에, 죽음도 굴단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 어쩌면 그 운명이 굴단의 주인들의 계획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른다. 아닐지도 모르고.

그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무덤의 입구를 막은 마지막 방어선이 깨졌다. 굴단은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문을 날려 버렸다. 소리가 이목을 끌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빨리 움직여야 했다.

"안내하십시오, 킬제덴. 난 성공할 테니."

그는 어둠에 잠긴 살게라스의 무덤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공간이라는 건 분명했다. 수없이 많은 통로가 지하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수천 년 전의 마법과, 이 세계의 영혼들의 운명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킬제덴도 더는 재촉할 필요가 없었다. 굴단은 무덤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안에 담긴 힘이 곧 그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군단의 손이 아니라... 그의 손에.

제 2 부: 옛 친구

마이에브 섀도송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끝났나, 대마법사?"

"거의 끝났소." 시간이 없었다. 카드가는 간단한 지시를 내리고 마지막 원소를 떠나 보냈다. "굴단을 찾아라." 비전 마력으로 형성된 물방울 모양의 그 생물이 둥실 떠갔다. 그와 같은 피조물들이 이미 해안에서 해안까지, 그늘진 곳을 샅샅이 뒤지며 이 섬 전체를 수색하고 있었다. 피조물은 전투를 벌일 만큼 강하진 않았지만, 파괴되면 카드가가 즉시 알아낼 수 있었다.

불과 몇 분 전에 느껴졌던 타락의 기미는 이내 사라져 버렸다. 굴단이 정말 근처에 있다면, 기척을 아주 잘 감추고 있었다. 아쉬운 일이다. "끝났소. 미안하군, 감시자여. 자, 우리가 수색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네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다."

"아, 감시자들도 이젠 침입자에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건가? 알려 줘서 고맙군." 카드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굴단이 환영받는 존재라면, 나도 별로 걱정할 게 없겠는데."

마이에브는 쌀쌀맞았다. "굴단이 정말 여기 있다면—"

"있소." 카드가가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처리하겠다. 네가 드레노어에서 망쳐 놓은 일에 대해 논의하고 난 후에."

"뭐라고?"

"우린 네게 감시자 하나를 보냈다. 충직하고 강직하게,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했던 자매였지."

"마이에브—"

"하지만 불과 몇 달 가량 네 곁에 머무는 동안 배신자가 되었다. 어떻게 된 거냐, 카드가? 무슨 짓을 했기에 그녀가 불타는 군단에 휘말린 거지?"

"다음에 콜다나를 만나거든 물어 보시오." 카드가는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마이에브가 그를 칼로 찌르기라도 한 것 같았다. "당신이라면 답을 끌어낼 수 있겠지. 내가 온 이유는 그게 아니오."

"콜다나는 우리에게 보고했었다, 카드가. 네 판단력이 우려된다고. 그것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시간이 없소—"

"'무모하고, 거만하고, 우유부단하고, 고집스럽다.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콜다나의 첫인상이었다." 마이에브와 감시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 거부의 장벽이 되어, 다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카드가, 지난 세월 동안 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아주 익숙한 네 성품이지 않나."

"그래, 과거의 실수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군. 내 실수를 열거하는 데는 몇 달이면 충분할 거요. 당신 실수라면 그러고도 몇 달이 더 필요하겠지만." 마이에브가 눈을 가늘게 떴지만, 카드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오. 지금은 남쪽을 봅시다." 그는 바다를 가리켰다. "감시자들도 바다 위 연기를 봤을 거라고 믿소. 굴단이 훔쳐 낸 배였소. 그리고 불태워 버렸지. 배의 모든 탑승객들과 함께." 그의 목소리에서 마지막 웃음기마저 사라져 버렸다. "굴단이 여기 있소. 곧 시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거요." 카드가는 감시자들이 서로를 흘긋 바라보는 모습을 봤다. "아니, 벌써 눈에 띄었군. 눈에 띄는 자도 있었소?"

감시관의 시선이 카드가를 꿰뚫었다. "나이트폴른뿐이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고 콜다나를 보낸 거였어."

"진짜 재앙은 아직 막을 수 있소. 역사가 되풀이되는 건 아니오. *이번* 굴단은 여기 오는 방법을 몰랐소. 검은 문을 통과한 것도 그자의 뜻이 아니었소. *누군가 그자를 이끌고 있는 것이오."*

"왜? 어디로? 살게라스의 무덤? 그건 텅 비었다. 그곳의 힘은 넬쥴과 일리단이 모두 차지했다."

카드가는 고개를 저었다. "마이에브, 그자의 주인들이 원하는 걸 알잖소. 아제로스로 통하는 문이오. 이미 하나를 만들려 했고, 다시 시도하는 거겠지."

"그건 불가능해."

"당신이나 나한텐 그렇겠지. 군단이 생각 없이 이렇게 세력을 확장할 리는 없소. 굴단은 군단의 이름으로 무덤을 차지하러 온 거요. 도와 주시오, 마이에브. 당신과 감시자들이 함께하면 놈을 막을 수 있소. 이거야말로 당신의 의무가 아니겠소?"

마이에브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카드가를 바라봤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모여라." 마이에브의 명령에 감시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녀는 빠르게 지시했다. "모두 배신자의 감금실에 집결해라. 그 안의 모든 것을 옮겨야 할 지도 모른다."

카드가는 할 말을 잃었다.

마이에브의 병사들은 경례를 하고 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섀도송 감시관님!" 그리고 한시도 주저하지 않고 남쪽으로 사라졌다. 무덤이 아니라 그 반대쪽이었다.

카드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마이에브는 감시자들에게 떠나라고 했다. 돕지 않을 작정이었다. "마이에브, 뭐하는 거요?" 그는 물었다.

마이에브는 그를 바라봤다. 부하들이 모두 떠난 후, 그녀의 말이 망치처럼 카드가를 때렸다. "넌 드레노어에서도 굴단을 막지 못했다. 여기서도 그랬다. 놈이 배를 훔쳤다고?

까마귀가 바람을 받고 항해하는 배 한 척을 따라가기가 그렇게 힘든가? 실패가 바다의 물보다 많구나."

카드가는 상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불타는 군단이 우릴 대적하고 있소. 드레노어에서 우리가 무엇을 상대해야 했는지 모르지 않소."

하지만 마이에브의 말은 끝난 게 아니었다. "굴단은 네가 따라잡기 전에 부서진 섬에 도착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 사소한 화재 때문에 놈이 탈출하고 남은 거리를 헤엄쳐 왔다고?"

사소한 화재.

그 배는 상선이었다. 승객도 많았다. 카드가가 처음 그 배를 발견했을 때, 굴단은 갑판에 바싹 마른 성인의 사체로 벽을 쌓고, 아이들은 한 줄로 세워 살아 있는 방패로 삼았다.

그리고, 작은 지옥불이 번뜩이자...

그 기억이 온몸을 분노로 채우고, 카드가는 가슴 속 말을 뱉었다. "그래, 당신은 그런 실패 따윈 한 적이 없겠지.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일리단을 쫓는 동안 자매들을 얼마나 버렸소?"

초원에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일 초가 흐를 때마다 둘 사이의 간극은 넓어졌다.

마이에브의 대답에 대화는 끝이 났다.

"널 도와 줘 봐야 모두 낭비겠군. 게다가 넌 틀렸다. 그 무덤에는 남은 게 없어. 한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힘의 잔류물은 지금 일리단의 유해에 담겼고, 그 유해는 금고에 있다. 그게 군단이 진짜 노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굴단의 목표다. 내 의무에 따라, 난 그곳으로 놈을 막으러 가겠다."

카드가는 날 선 대꾸를 삼켰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섀도송 감시관,"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당신은 무덤을 알고, 난 모르오. 그게 *치명적인* 차이가 될 수 있소."

마이에브는 돌아섰다. "행운을 빈다, 대마법사여. 네 실수를 깨닫게 되거든, 금고로 날 찾아와라.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녀는 감시자들을 따라 달렸다.

카드가는 마이에브를 부르지 않았다. "어쩔 수 없군." 그는 중얼거렸다. 곧 마이에브가 사라지고, 카드가는 까마귀가 되어 하늘 높이 솟아 올랐다. 그는 난파선 주위를 선회하며 굴단을 찾았지만 소득은 없었다. 숨어 있는 나이트폴른 외의 다른 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굴단이 만을 가로질러 탈드라나스로 가는 방법을 찾아냈거나, 북쪽의 수라마르와 높은산으로 달아난 모양이었다. 그 중 한 가지가 유난히 위험했다. 카드가는 방향을 틀어 공해상으로 나가, 고대의 버려진 구조물이 드높이 솟은 검은 섬으로 향했다.

수 년 만, 아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절망을 느꼈다. 어둠의 문 너머 자살과도 같은 임무를 떠날 때도 이런 공포를 느끼진 않았다. 그 때엔 강철 호드의 목표가 명확했다. 정복이었다. 카드가가 실패하더라도 그의 죽음이 끝이다. 성공하는 데에도 궁극적으로 희생이 필요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일을 마주하니 평화롭기까지 했다. 하지만 불타는 군단은... 카드가도 군단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그 진정한 목적이 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군단에게는 아제로스를 정복하는 것이 수단에 불과했다. 살아 있는 생물 모두를 노예로 삼거나 소각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알 수 없었다. 그 답은 두려웠다.

그게 드레노어에서 그가 굴단에게 집중했던 이유였다. 적이 하수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적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터였다.

군단이 자신들의 졸을 살게라스의 무덤에 똑바로 던졌다. 마이에브의 말도 절반은 옳았다. 그 무덤은 이미 오래 전에 모든 힘을 잃었다. 남아 있던 나가도 키린 토에 의해 추방되었고, 그 후에 잔류하던 보잘것없던 유물은 모두 감시자의 손에 들어갔다. 섬세한 비전 자물쇠와 수호물이 구조물 전체에 설치되어, 강력한 힘으로 도둑과 모험가, 사악한 악의 하수인들을 영원히 막아낼 수 있었다.

의도가 뚜렷하고, *막강한* 힘을 지닌 개인만이 그곳에 침입할 수 있다. 굴단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저 어떻게 들어가려 하는지 알아내는 것만이 문제였다—

콰광.

그래. 수수께끼 하나는 풀렸군. 멀리서 숨죽인 폭음이 들려 온 직후 강력한 충격파가 대기를 뒤흔들었다. 눈을 홱 움직여 아래쪽 탈드라나스 섬을 바라보며, 까마귀는 바람을 가르고 날았다. 살게라스의 무덤 위로 먼지 구름이 일어났다. 카드가는 무덤을 향해 강하했다.

입구는 고스란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어 있었다. 카드가는 빙빙 돌며 지상으로 내려갔다. 깃털은 피부와 은빛 머리카락으로 변화하고, 가느다란 새의 발은 부드러운 장화 속 발로 커졌다. 늘 그렇듯 한 순간에 일어났다. 스승에게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것이었다. 두 발이 땅에 닿으면서 그는 팔을 넓게 벌리고 남아 있는 먼지와 돌 가루를 떨쳐냈다. 무덤을 봉인한 마법과 물리적 방벽은 모두 파괴되었다. 지옥 잔류물만 남아 있었다. 굴단의 소행이었다.

카드가는 가만히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고 감지했다. 멀리서 꿈틀거리는 지옥 마법이 느껴졌다. 굴단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혼자서 돌격해 들어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다. 그리고 무덤의 통로를 하나하나 뒤질 시간이 없다. 이 무덤의 내부는 미로와도 같았다. 굴단의 자취를 쉽게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유일한 길은...

아니,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카드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쩔 수 없군." *해야만 하는 일이다.*

카드가는 무덤 안으로 뛰어 들었지만, 이내 고통에 휩싸였다. 검은 웅덩이가 발 아래 열리며, 신음을 흘리는 공허방랑자가 다른 차원으로부터 손을 뻗어 그의 다리를

움켜쥐었다. 얼음장과 같은 그 손아귀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뼈를 가루로 만들 것만 같았다. 카드가는 형체 없는 얼굴들을 향해 신비한 폭발을 일으키며 손아귀를 떨쳐냈다.

굴단의 첫 번째 함정은 실패였다. 물론 이뿐이 아닐 것이다. "잘 됐군." 카드가는 중얼거렸다. 다시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도착하자, 카드가는 양쪽 통로를 향해 마력을 밀어 넣었다.

왼쪽 통로에서 불길이 터져 나왔다. 완벽해.

카드가는 왼쪽으로 돌아 불길을 향해 달렸다. 백 미터 쯤 앞에서, 또 갈림길이 나타났다. 이번엔 북쪽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카드가는 그대로 달려 다음 함정을 잘랐다.

굴단은 누군가에게 이끌리고 있다. 분명했다. 가짜 흔적을 남길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카드가는 계속 달렸다. 굴단의 함정만 따라가면 됐다. 나쁜 생각은 아니었다.

통로와 통로를 거듭 지나며, 카드가는 계속 달렸다. 굴단은 다급하게 함정을 만든 모양이었다. 카드가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그 덕분에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거대한 번개가 날아왔을 때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카드가가 한 걸음만 뒤쳐졌더라면, 소용돌이치는 초록색 불의 창이 그의 망토가 아닌 심장을 꿰뚫었을 것이다.

무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카드가는 벽에 섬세한 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눈치챘다. 비전 룬인가? 그런 게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낯선 룬이었지만, 카드가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진보한 문양이기도 했다. 이상했다. 빛을 발하는 것도 있었다. 그건 더 이상했다. 굴단은 비전 마법에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정말 그럴까? 카드가의 머리 속에 맹렬한 소용돌이가 쳤다. *어떻게 된 거지?* 이 세계 최강의 수호자 에이그윈이 수백 년 전에 이 장소를 요새화했다. 그녀가 부여한 마법은 카드가가 흉내도 내지 못할 수준이었다.

그때 에이그윈은 살게라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생각이 거기 미치자 카드가는 우뚝 멈췄다. 다른 함정이 겨우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파르르 떨리다가 폭발했다. 그는 투덜거리며 자신을 방어했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다. 룬 하나는 통로 천장에 새겨져 있었다. 주의 깊게 살펴봤지만, 정말 그런 룬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곡선과 마력을 집중하는 방식은 어딘가 익숙했다.

자물쇠의 일부를 구성하는 룬이었다.

자물쇠가 아니야. 공포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 룬은 *열쇠의* 일부였다. 거대하고 감춰진 열쇠, 이 무덤의 구조물 자체에 덧씌워진 열쇠. 마치... 우주와 같이 복잡했다. 다른 표현은 떠올릴 수가 없었다. 단 하나의 룬으로 이해하려 하는 건 한 방울의 물로 바다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빛이여, 우릴 도우소서." 그 열쇠가 무엇을 열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불타는 군단은 아주 오래 전 여기에 차원문을 생성하려 했다. 실패했지만. 군단의 힘은 사라졌다. 키린 토의 모든 학자가 거기에 동의했다.

불타는 군단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겠지. 그렇지 않다면 꼭두각시가 여길 오진 않았을 테니까.

에이그윈은 의도적으로 이 열쇠를 만들었을까? 살게라스가 그녀의 행동을 뒤틀어서 그녀 자신도 모르게 이 열쇠가 만들어진 걸까? 알 수 없었다. 지금 알 수 있는 건 이 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뿐이었다. 카드가가 이 룬을 조작하려고 하면, 룬이 그의 힘을 차단할 터였다. 어쩌면 그 힘을 자신에게 되돌릴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일 테고.

카드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굴단이 가까이 있었다. 이 섬에서 유일한 군단의 졸개를 없애면, 악마들의 계획도 무너진다.

통로가 곧 같은 방향으로 구부러졌다. 카드가는 그곳을 통과하고 지옥 마력이 맥동하는 지점을 향해 달렸다. 함정은 이제 없었다.

좁지만 화려하게 장식된 문을 지나 높다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천정은 어둠 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중앙에 그의 사냥감이 있었다.

굴단은 웅크리고 앉아 바닥의 빛나는 석판 위에서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붉은 눈에 깜짝 놀란 기색이 보였다.

카드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아주 오랜만이군, 옛 친구여." 대마법사의 손에서 무시무시한 마력이 용솟음쳤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굴단이 이빨을 드러냈다. "정말 그랬나?"

초록색 불길이 보라색 마력과 만났다.

살게라스의 무덤이 전율했다. 싸움이 시작됐다.

제 3 부: 무덤의 격노

거대한 마력의 파도가 맞부딪히고, 비전과 지옥 마력의 소용돌이가 되어 부풀어 올랐다. 거대한 방이 뒤흔들리고, 불의 격류가 사방을 채웠지만, 카드가와 굴단은 흔들리지 않았다. 꿈쩍도 하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카드가는 그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턱을 치켜들었다. 책략의 여지는 없었다. 끝없이 쇄도하는 순수한 힘의 대결 뿐.

둘의 격노가 충돌하는 곳에 불길이 치솟았다. 대기가 불타오르려 했다. 그랬다가는 무덤 속 모든 것이 파괴되리라. 카드가도, 굴단도 함께.

둘 다 물러서지 않았다.

—굴단, 멈춰라.—

그 지긋지긋한 목소리다. 킬제덴. 굴단은 소리쳤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복종해라. 힘을 거둬.—

“죽일 수 있습니다!” 굴단은 분노했다.

카드가는 싱긋 웃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건 누구냐, 굴단? 누가 네 목줄을 쥐고 있지?” 굴단은 말 없는 포효로 답하며, 더 큰 마력을 대마법사에게 내뿜었다. 불꽃이 튀었지만, 카드가는 거친 웃음과 함께 그 마력을 쳐냈다. “네 주인 중에 우리가 아직 안 죽인 게 누구냐?”

킬제덴의 목소리가 굴단을 붙잡았다.

—어서 끝내라! 오늘은 너희 둘 다 죽을 수 없다.—

“뭐라고?!”

— 어서 멈춰! —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굴단이 복종하지 않으면, 지금 즉시 군단으로부터 소외될 것이다.

그래서 굴단은 복종했다. 두 팔을 활짝 펴고 자신의 힘을 얇고 순수한 지옥불의 막으로 펼쳤다. 카드가의 공격이 막을 꿰뚫자, 막은 눈부신 빛의 폭발을 일으켰다. 카드가는 눈을 가렸고, 빛이 사라지고 나자 굴단도 보이지 않았다.

카드가는 몸을 곧게 펴고 어깨를 털었다. 로브의 실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아직 여기 있는 거 안다, 굴단. 네가 달아날 곳은 없어."

굴단은 어둠 속에 몸을 감췄다. 감시자들을 상대할 때 썼던 마법 덕분에 카드가는 그를 볼 수 없었지만, 대마법사에겐 그를 찾아낼 다른 방법이 있었다. "일을 마치려다가는 놈에게 들킬 겁니다." 굴단은 킬제덴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자를 처치하겠습니다."

*— 놈은 승리하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다. 언젠가 그게 우리의 기회가 되리라. —*

굴단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타는 군단의 계획에 카드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일이었다. *정말 저자가 배신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 성공한다면, 군단에 내가 필요할까?* 배신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굴단은 어둠 속에서 계속 움직였다. 카드가가 빛나는 비전 보주를 생성하여 조금씩 어둠을 쫓아냈다.

그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네 역할은 뭐냐, 굴단? 킬제덴이 네게 명령을 하느냐? 아니면 놈의 강아지냐?"

그의 목소리가 모든 돌에서 한꺼번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영리했다. 자신의 위치를 감추는 방법이었다. 굴단은 재빨리 모방했다. 지옥의 힘을 약간 더하자,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카드가, 도와 줘서 고맙단 얘길 안 했군. 내 병력만으로는 강철 호드를 쓰러뜨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너와 네 친구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

카드가는 웃었다. “그래, 네겐 아주 잘 된 일이지. 그런 일이라면 언제든 도와 주마.” 그는 빙글 돌아서 화염을 굴단에게 발사했다. 돌기둥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천정에서 바위가 떨어지며 산사태처럼 우르릉거렸다.

굴단은 가만히 혼돈이 가라앉길 기다렸다. 공격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적중했다. 몸을 제대로 숨기지 못한 걸까? 하지만 잠시 후, 카드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냥 운이 좋았던 모양이었다.

카드가의 등이 굴단에게 훤히 보였지만, 공격할 수가 없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전투가 고조된 와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 *킬제덴은 격분하겠지만, 아직은 내가 필요하다.* 굴단은 적당한 때가 되면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

그때까지는 서둘러야 한다. 한 걸음도 서툴게 디딜 수는 없다. “킬제덴, 이 무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침묵. 그리고 잠시 후, 킬제덴이 응답했다.

—잘 들어라.—

귀를 기울였다. 킬제덴의 말을 들으며, 굴단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뒤틀며 웃었다.

카드가는 천천히 방 중앙을 거닐며, 발소리를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거대한 공간이었다. 기둥이 줄지어 선 채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고, 반쯤 깨어난 룬의 빛이 희미하게 맴돌았다. 굴단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끝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를 쫓는 것보다는 끌어내는 게 쉬울 터였다.

“혹시 겁을 먹은 거냐, 굴단?” 답은 없었다. 카드가는 자신의 말과 움직임이 단검처럼 흑마법사의 자존심을 꿰뚫기를 기대했다. 굴단은 물러나라는 지시가 달가울 리 없었다.

불타는 군단이 그자를 그렇게까지 움켜쥐고 있는 건가? 카드가는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서 잘 단련된 적을 처치해 본 적이 있기는 한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상대 말이다. 다른 굴단은 그렇지 않았다. 드레노어에서 아제로스를 침공해서, 수많은 도시들을 함락시켰지만, 항상 더러운 일은 남에게 시켰지. 너라면 지금 일이 꽤 불편하겠구나."

부스럭거리는 소리. 살결이 옷에 스치는 소리가 카드가에게 경고했다. 굴단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포효하는 초록색 불의 벽이 카드가의 등으로 밀어닥쳤다. 그는 불길이 다가오길 기다렸다. 열기가 목에 닿을 때쯤 간단한 손동작을 했다. 비전 마법이 주위의 공기를 얼리고, 얼음 방벽이 그를 감쌌다.

굴단의 불은 물방울이 몇 개 맺히게 했을 뿐이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굴단은 다시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카드가는 웃었다. 다시 손짓을 하자 방벽이 수많은 조각으로 깨지며 싱그러운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카드가는 몸을 부르르 떨어 한기를 떨치고 다시 걸었다. 장화가 얼음을 짓이겼다. "정말 아까웠다."

숨죽여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방안에 울렸다.

카드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날 공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했나? 군단의 체벌은 어떤 식이냐, 굴단? 이제 착한 강아지가 됐어?"

오크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곧 터져버릴 것 같았다. "운명을 믿느냐, 인간?" 굴단이 물었다.

이상한 질문이었다. "*너의* 운명이라면 알고 있지."

"구원은 어때?"

"구원? 너 말이야? 안 되지." 카드가는 콧방귀를 뀌었다.

“아니, 내가 아니다. 난 너희 구원은 지긋지긋하다. 내가 듣기로는, 헬스크림의 아들도 그랬다고 하더군.”

그 말은 사실이었다. “너는 뭘 원하냐? 꼭두각시 노릇 하는게 좋진 않을 텐데.”

“난 내 적들을 불태우고 싶다.” 굴단이 말했다.

“멋지군.” 카드가가 말했다. 공격은 계속되지 않았다. 굴단은 시간을 끌고 있었다.

카드가는 방을 살폈다. 가까운 곳에서 기둥 받침이 반짝여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 룬은 알아볼 수 있었다. 고대 명가의 작품이었다. 고대의 전쟁 도중, 군단이 여기 차원문을 열어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하려 했을 때, 상당한 마력을 투입하여 이곳을 봉인해야 했다.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었다. 다섯 개의 봉인 중 하나. 공부를 하던 때 본 적이 있었다. 카드가는 가까이 다가가 룬을 살펴봤다. 매혹적인 작품이었다. 다급하게 그렸지만, 무척 정밀했다. 게다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보라색 빛이 파문을 일으키며——

뭔가 소리가 들렸다. 봉인이 초록색으로 빛난 후 어두워졌다. 카드가는 멍하니 바라봤다. 잠시 후 봉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봉인이 그의 눈앞에서 파괴되었다. 카드가는 마음 깊은 곳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굴단. 놈은 숨은 채로 봉인을 파괴하고 있었다.

봉인이 모두 사라지면? *군단이 승리한다.* 카드가는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어깨 높이의 눈물 모양 피조물을 생성하고 마력으로 가득 채웠다. 두 개의 팔이 나타나고, 비전 정령이 눈을 떴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카드가는 어둠 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누군가 숨어 있어. 그 녀석이 나타날 때까지 바위를 걷어차 줘.”

“복종합니다.” 정령이 말했다. 다리가 없으니 뭔가를 실제로 걷어찰 순 없겠지만, 정령은 아무 대꾸 없이 동쪽 구석으로 갔다. 다행이었다. 정령은 지시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일도 많았으니까. 굴단은 어떻게든 드러나겠지만, 정령을 하나만 쓸 이유도 없었다. 카드가는 정령들을 더 소환했다. 흑마법사에게 압력을 가할 때가 됐다.

놈의 주인에게도 압력을 가해야겠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정신을 흐트려 놓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래, 굴단.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네가 어떻게 죽었는지 군단이 알려 줬나?"

그건 내가 아니야. 굴단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짜증과 함께 호기심이 생겨났다. 다른 굴단의 최후를 대마법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걸까?

킬제덴이 그의 마음을 읽었다.

—무시해.—

"네, 압니다." 굴단은 여전히 고통에 잠겨 쇳소리를 냈다. 카드가를 공격한 후, 곧바로 주인을 거역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래서 굴단은 더 분노했다. *높은망치의 노예들도 이것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았을 테지.*

그는 방을 이리저리 둘러 보았다. 근처엔 카드가의 피조물이 하나도 없었다. 굴단은 카드가가 눈치채지 못하게 지옥 마력을 극소량만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킬제덴은 이 무덤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다. 최초의 구조물은 수천 년 전 악마를 막는 수호물로 보호되고 있었지만, 굴단은 악마가 아니었다. 여기엔 너무 많은 힘이 담겨 있고, 그 중에는 군단의 것이 아닌 힘도 있었다. 능숙하게 뒤덮어 감추고 조심스럽게 숨겨 놓은 탓에 지금껏 단 한 명만이 찾아낼 수 있었던 힘. 하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만 년이 지나자, 불완전한 필멸자가 티탄의 힘으로 엮은 봉인들에 작은 약점들이 드러났다.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군단은 이 봉인에 손을 댈 수 없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고대에 수호물을 만든 자들은 봉인을 파괴하려는 자를 모두 처치하려고 했지만, 굴단은 이미 다섯 개의 봉인을 모두 파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나는 벌써 파괴되었고, 굴단은 살아남았다. 군단은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네 개 남았다.*

굴단이 힘을 가하자 뭔가 부서졌다. 무덤 전체가 흔들렸다. 봉인이 또 하나 깨졌다. *셋 남았다.* 그는 카드가를 올려다 봤다. 대마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모양이었다. 봉인을 파괴하는 일은 굴단이 생각했던 것처럼 극적이지 않았다.

이 차원문을 열기까지 군단이 준비해 온 힘 모두가 멀리서 굴단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너무 오랫동안 잠자던 힘이다. 이제 차지해야 했다.

흥미롭게도 군단은 이 아래에 *또 다른* 힘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굴단은 그걸 느낄 순 있어도 손에 넣을 순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상관 없는 힘이었다.

카드가의 목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호드는, 첫 번째 호드는 로데론 전역을 공격했다. 넌 그들을 버리고 여기 왔고." 카드가의 정령 중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를 보지는 못했다. "바다 아래에 있던 이 섬을 네가 끌어올렸지. 아주 멋졌다."

굴단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꿈틀거렸다. 지옥 마력이 무덤의 룬 안쪽 깊은 곳에서 움직이며 세 번째 봉인을 찾았다. *저기 있군.* 굴단은 붙잡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너무 미끄러웠다. 그 약점을 열려고 할 때마다 손이 미끄러졌다. 어둠 속에서 거미의 비단줄 매듭을 푸는 것 같았다. 그것도 발가락으로.

"그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네가 어떻게 됐는지 아나, 굴단?" 카드가가 물었다.

갑작스럽게 굴단의 마법이 손을 벗어났다. 세 번째 봉인은 아주 산산이 부서졌다.

낮게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방 전체를 울리고, 무너지는 소리가 뒤따랐다. 굴단은 얼어붙었다. 카드가의 피조물들도 움직임을 멈췄다. 낮게 웅웅거리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방의 벽과 바닥을 이루는 모든 돌에서 초록색과 보라색 불빛이 번쩍였다.

굴단은 세 번째 봉인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우연히 네 번째까지 파괴했다. 목숨을 잃지 않은 건 기적에 가까웠다.

봉인은 겨우 하나 남았다. 킬제덴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잘했다. 마지막도 파괴하라.—

굴단은 머뭇거렸다. 마지막 봉인은 어딘가 달랐다. 조심스럽게 더듬어 봐도 약점은 없었다. 믿을 수 없게 강하고, 매 순간 점점 더 강해졌다. 무덤 그 자체가 봉인을 강화했고, 봉인에서는 비전 마력이 뿜어져 나왔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누군가 이 순간을 예상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 둔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힘이 관여하고 있었다. 수 세기 전 이곳을 차지했던 다른 필멸자, 그 여자의 작품이었다.

“킬제덴, 어떻게 된 겁니까?” 굴단은 속삭였다.

아무런 답이 없었다.

빛이 방을 채웠다. 굴단은 카드가가 막대한 양의 비전 마력을 준비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대마법사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게 분명했다. “*이제야* 이 장소가 왜 그렇게 낯설었는지 알겠군. 수련생 시절 이후로는 이런 걸 느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왜 수호자의 힘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굴단...”

카드가가 마력을 방출했다. 굴단은 긴장했지만, 비전 마법은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지 않고 공중에 형상을 만들어냈다. 쐐기 모양으로 카드가 키의 세 배 정도 되는 물체가 빛을 내뿜었고, 그 윤곽은 삐죽삐죽했다. 카드가가 손을 회전시키자, 날카로운 면이 바닥으로 향했다.

대마법사의 고통에 찬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 하지만 뭘 하려는지는 알겠어.” 비전 정령들이 쐐기를 향해 모여들었다. 그들의 팔이 하나가 되었다. “내가 돕겠다.”

굴단은 킬제덴으로부터 무언의 경고를 받았다.

정령들이 쐐기를 아래로 잡아당기자, 그 물체는 지면을 강타하고 석조 바닥을 깨뜨렸다. 방 전체가 흔들리고, 굴단도 쓰러졌다.

—저자를! 당장 죽여라, 굴단!—

킬제덴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다. 굴단은 벌떡 일어나 검은 망토를 어깨에서 벗었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주문을 버렸다. “복종합니다, 킬제덴.” 오크는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카드가가 즉시 그를 발견했다. “그래, 킬제덴이었군.” 그는 싱긋 웃으며 두 손을 앞으로 뻗었다.

카드가와 굴단의 힘이 중앙에서 충돌하며 천둥처럼 울부짖었다. 전투의 열기에 아래쪽 돌들이 물렁해지고, 비전 정령들은 다시 쐐기를 들어올렸다. 방이 흔들렸다.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차원문을 열어야 하는 섬세한 장치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쐐기가 계속 위아래로 움직였다. 보라색과 초록색 빛이 소용돌이치며 깜빡였다.

공간이 파괴되는 중이었다. 카드가는 방 전체와 함께 군단의 차원문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굴단은 계속 공격했고, 카드가는 모두 막아냈다. 반격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이기고 있었으니까.

"킬제덴," 굴단이 속삭였다. "무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 돼.—

굴단은 말을 마구 뱉었다. "하나 남은 봉인은 아직 보호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걸 부술 수도, 저자를 처치할 수도 없습니다! 놈은 수십 년 동안 날 연구해 왔으니, 날 막을 수 있습니다."

—넌 날 배신할 거야.—

굴단은 공격에 힘을 더했다. 카드가는 흔들렸지만 굳건히 버텼다. 좌절스러웠다. "카드가가 무덤을 파괴하면 군단도 다시는 이곳을 쓸 수 없습니다. 이 바보를 정말 죽여 버리고 싶지만, 잘못하면 당신네 계획이 모두 잿더미가 될 겁니다."

카드가의 얼굴에 땀이 방울져 흘렀다. "이야기를 하다 말았군. 넌 살게라스의 무덤에 들어온 후, 매복 공격을 당해 죽었다."

굴단은 킬제덴이 머뭇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기만자는 날 너무 잘 알아.*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세계에 있는 불의 호수와 같은 뭔가가 손에 닿았다...

"다른 굴단은 얼라이언스의 손이나, 배신한 호드의 손에 죽은 게 아니다." 카드가가 말했다. 굴단도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자는 이 무덤에 들어와서 악마의 손에 사지가 찢겨 죽었다. 불타는 군단에게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지."

그 말이 굴단을 강타했다.

오래전 드레노어에서 그는 추방자였다. 끼니 걱정뿐 아무런 야망도 없었다. 군단이 그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보여 주었다. 힘은 무시되지 않는다. 그 뒤로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다.

카드가가 그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 주었다. 굴단의 힘도 유용하지 않을 때가 온다. 군단이 그를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게 운명이었다.

그 순간 힘이 쏟아져 들어왔다.

카드가가 말을 이었다. "일이 끝나면 놈들이 널 어떻게 할지 궁금하구나, 굴단." 그 순간 카드가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흑마법사?"

굴단은 카드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힘을 마지막 봉인을 향해 돌렸다. 남은 힘을 모두 쏟았다. 군단에게 빌린 힘 전부였다. 굴단은 지옥의 손아귀로 마지막 봉인을 붙잡아...

... 으스러뜨렸다. 치명적인 마력이 뿜어져 나와 그의 힘과 부딪혔다.

그렇게 봉인은 사라졌다. 두 세계 사이의 방벽을 깨뜨릴 만큼 강한 불타는 군단의 힘이 풀려났고, 이 섬 깊은 곳에 묻힌 차원문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그 힘은 이 세계에 풀려나지 못했다. 굴단의 차지였다.

불이 굴단의 정신을 채웠다. 굴단은 비명을 지르고 머리를 움켜쥐며 눈을 감았다.
카드가도 무덤도 잊었다. 방어가 무너지자 카드가의 비전 격노가 그를 휩쓸었다. 굴단은 힘에 질식하느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끝없는 바다에 빠져들었다.

사악했다. 정말이지 아름다웠다. 그는 깊이 들이마셨다.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균형을 찾았다. 제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진짜 힘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이었다. 이게 불타는 군단이 약속했던, 무시되지 않는 힘이었다.

지금까지 악마들이 준 건 부스러기였다. 쓰고 버릴 바보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굴단은 눈을 떴다. "잘 가라, 대마법사."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렸다.

카드가는 얼음으로 자신을 감쌌다.

압도적인 격노가 분출되었다. 방은 거친 바다 위 배처럼 흔들렸다. 비전 정령들과 쐐기가 한 순간에 소멸했다.

얼음 덩어리와 그 안의 대마법사는 폭풍 속 자갈과 같았다. 하지만 흑마법사가 아무리 강하게 움켜쥐어도 깨지지 않았다. 놀라웠다. 굴단은 원한다면 온 세계도 깨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카드가는 나중에 없애도 된다. 굴단이 손을 젓자 얼음 덩어리는 문을 통해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굴단은 문을 붕괴시켰다. 엄청난 양의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 방을 봉쇄했다. 카드가가 아직 살아 있다고 해도 이제는 문제 없었다.

굴단이 이겼다. 그가 품은 힘은 기대 이상이었다. 가능성은 끝이 없었다.

그런데도 킬제덴은 아직 명령을 내리려고 했다.

— 넌 맹약을 맺었다, 굴단. 임무를 마쳐라. 우리의 길을 열어라.—

굴단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 순간을 음미했다.

“아니, 킬제덴." 그가 대답했다. "그러지 않겠다.”

제 4 부: 홀로서기

카드가는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이 떨리고 욱신거렸다.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이 몸에서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졌다. 죽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감각이 사라지는 추위와, 완전한 실패의 슬픔?

통로는 어두웠다. 카드가는 멍하니 빛의 구를 만들어 내고는, 한때 출입구였지만 이젠 바위 더미가 되어 버린 곳을 바라봤다.

굴단은 반대편에 있었다. 아제로스에 대재앙을 불러 올 힘을 손에 넣은 채로.

카드가는 공포를 잠시 억눌렀다. 굴단은 아직 관문을 열지 않았다. 어쩌면 조금 전의 역사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비전 쐐기를 또 하나 소환하고는 돌 더미에 꽂아 넣으며 돌을 조금씩 파냈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언제든 희망은 있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킬제덴은 침묵했다. 굴단은 아니었다.

“카드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차분한 목소리였다. 드레노어의 가른도 살육의 축제를 벌이기 직전까지는 차분했다. “그자는... 다른 굴단은 여기서 군단의 손에 죽었겠지?”

—그래, 그랬다.—

굴단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불타는 군단은 맹약을 지키지 않는군.” 이 힘이 있다면 군단은 필요하지 않다. 혼자서도 아제로스를 차지하고 적에게 불의 비를 퍼부을 수 있다. 첫 번째 먹잇감은 카드가가 되겠지만 불로 쉽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었다. 다른 굴단이 이

섬을 물 위로 끌어올렸으니, 다시 심연으로 가라앉히는 게 어울릴 것만 같았다. 대마법사는 바다 속에서 얼마 동안 견딜 수 있을까? 즐겁게 지켜봐 주지. “우리 협력 관계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

— 네가 바보이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킬제덴은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했다. 굴단은 웃었다.

“그래도 이번 바보는 경고를 받았지.”

킬제덴의 말은 끝난 게 아니었다.

— 난 네가 처음 우리와 결속할 때도 거기 있었다. 늘 거짓된 야망에 중독되는 널 지켜봐 왔지.—

분노가 굴단의 만족감을 꿰뚫었다. “거짓?” 그는 새로운 힘을 이용하여 킬제덴과의 결속을 거슬러 올라갔다. 에레다르의 얼굴이 보였다. “넌 처음부터 날 버릴 계획이었다.”

킬제덴의 타오르는 눈이 깜빡이지도 않고 굴단을 바라봤다.

— 아니, 굴단. 우린 장신구와 푼돈으로 약자를 유혹한다. 너에겐 훨씬 더 큰 걸 약속했고.—

굴단은 비웃었다. “큰 물고기엔 큰 미끼를 쓰지. 그래도 배를 가르는 건 마찬가지다.”

*— 넌 우릴 배신했기 때문에 죽었다. 넌 **나의** 호드를 도와 이 세계의 저항 세력을 박멸해야 했지만, 최후의 순간에 호드를 저버렸어. 이 세계를 차지하려고 호드의 병력을 분열시켰다. 우리 계획은 수포로 끝났고. 네가 자초한 운명이야.—*

“그건 내가 아냐!” 굴단은 외쳤다.

— 배신은 네 천성이다. 내가 네 모가지를 끌고 여기 온 건 네가 아직도 자신의 잠재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도 넌 그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넌 미래를 보지 못해.—

킬제덴은 금속과 연마된 수정, 그리고 굴단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물질들로 만든 거대한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런 그가 지금 일어섰다. 굴단은 한층 고조된 감각으로 다른 세계를 엿보았다. 냄새가 났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 세계의 이름은 무엇일지 궁금했다. 언젠가 그곳에 갈 수는 있을지 궁금했다. 그런 세계를 정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난 네가 다른 굴단과 달리 미래를 볼 줄 알기를 바랐다. 하지만 별로 다르지 않구나.—

"내 주인이여, 아쉽지만 다시 실망해야겠구나." 굴단은 말했다. "내 *거짓된 야망을* 무시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거든."

아무런 가망이 없었다. 앞서의 방에 다시 들어가려면 며칠이 걸릴지 몰랐다. 굴단은 당장이라도 목적을 이룰 수 있었고, 바위 더미는 끝이 없었다.

파내기 좋은 지점이 따로 있을지도 몰랐다. 벽이 두껍지 않거나, 바닥이 얇은 곳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비전 정령을 더 소환해 볼까? 아니, 그 정령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생각이 많아 지금 이순간에 집중할 수 없었다. *아제로스의 종말은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불타게 될까? 얼마나 많은 이 세계의 주민이 노예가 될까? 죽음보다 타락을 선택할 용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놈들은 군단의 뜻에 따라 얼마나 더 많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거지?

한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꿨다.

"생각보다 잘 하고 있는 것 같군, 대마법사."

카드가는 돌아서지 않았다. 안도하는 기색을 내비치긴 싫었다. "소란을 피운 덕에 당신 주의를 끌었던 모양이군. 여길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소? 놈과 우리 사이에 바위가 적은 곳 말이오."

마이에브 섀도송이 곁으로 다가와 잔해의 벽을 살폈다. “찾을 수 있겠어. 굴단은 혼자인가?”

묘하게 답하기 힘든 질문이었다. “지금은 그렇다고 해 두지. 시간이 얼마 없소.”

“물론 그렇지.”

“마이에브.” 카드가는 침울하게 말했다. 감시관이 돌아온 만큼, 미리 알려 줘야 했다. “난 실패했소.”

그녀의 묘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래서?”

“당신과 난 이제 굴단을 막을 수 없소.”

“그럴 시간에 움직이지 그래.”

뭐, 그 말엔 반박할 수가 없었다. “좋은 지적이오.” 카드가가 말했다.

“이쪽이다.” 마이에브는 동쪽 통로로 달렸다.

킬제덴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대기가 전율했다.

—처음부터 넌 네가 힘을 얻을 운명이라고 믿었다. 그건 사실이지. 넌 스스로의 주인이 될 운명이라고도 믿었다.—

다음 말은 단호하고 강렬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 굴단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모든 생물은 주인을 섬긴다. 나도 그렇다. 선택은 하나뿐이다. 섬기거나, 혼자 죽거나.—

굴단은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언젠가 너도 내게 고개를 숙일지 모른다, 기만자여.”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를 지배하겠나? 네 힘은 영원하지 않아. 군단과 비교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두고 봐야지.”

— 종속은 감옥이 아니다. 넌 날 섬기고, 다른 자들이 널 섬기지. 수많은 자들의 주인이 되어 군단의 병력을 지휘하는 걸 상상해 봐라. 네가 ***불태울*** *수많은 세계를 상상해 봐라.—*

굴단은 킬제덴을 바라봤다. *저 모든 힘. 저 모든 격노. 하지만 이제는 날 복종하게 만들지 못한다. 공허한 약속은 필요 없어.*

킬제덴은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끼는 듯했다.

—그만둬라, 굴단. 선택해. 네 충성심을 증명하고, 네 힘을 차원문으로 돌리면 길이 열릴 것이다. 아니면 다시 한 번 우릴 배신할 수도 있어. 우리가 널 파괴하기 전에 네가 즐길 수 있는 건 무가치한 필멸자들에게 의미 없는 복수를 하는 일뿐이다.—

에레다르는 떠나려 했다.

— 알아 둬라. 날 “기만자” 라고 불러도 좋지만, 난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한 번도. 이 세계에서도, 또 네 세계에서도.—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킬제덴은 굴단의 정신을 밀어냈다.

방이 조용해졌다. 굴단은 혼자가 되었다. 킬제덴은 먼 곳에 있었다.

유일하게 거슬리는 건 미세한 떨림이었다. 카드가가 다시 기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헛된 수고겠지만.

불타는 군단은... 힘든 결정은 아니었다. 굴단이 군단을 섬기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는 어느 주인도 섬기지 않는다.

한 점 의혹이 뱃속으로 스며들었다. 굴단은 눈살을 찌푸리며, 혈관을 흐르는 힘이 그걸 녹여 버리길 기다렸다. 그러지 못했다.

성가셨다. 어쩌면 자신을 의심하는 건 극복할 수 없는 필멸자의 약점인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살폈다. 손 안의 힘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다. 이 불확실한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바닥이 다시 흔들렸다. *카드가.*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마이에브 섀도송의 기척도 느껴졌다. 감시관이 돌아왔다. 그건 예상치 못했다. 굴단이 전에 봤을 때는 둘 사이에서 증오가 느껴졌다. 그걸 언짢을 만큼 빨리 극복한 모양이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가? 훌륭하군. 죽음을 서두르는 짓일 뿐. 놈들을 처치하면 머리가 맑아질 것 같았다.

그러면 아제로스에는 굴단에 대적할 자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이거다. 또 의혹이 생겼다.

카드가는 완전하게 패배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섀도송은 대마법사 자체를 거부했지만, 목숨을 걸고 그를 돕고 있다. 저 둘만 그런 게 아니었다. 다른 자들도 있었다.

다른 자들은...

함께... 강철 호드에 맞서 승리했다.

함께... 그들은 타락한 호드에 *달려들어* 싸웠다. 굴단의 성채에 진입하여 산산이 조각냈다.

함께... 그들은 불타는 군단에 맞섰다. 아키몬드를 쓰러뜨렸다. *그 악마*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 무엇으로부터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순수한 공포가 굴단의 마음 속에 번졌다. 지금 그는 그 대마법사보다 훨씬 끈기 있는 생물들이 모인 세계에 혼자 서 있었다. 굴단이 그들 모두와 맞서야 했다.

혼자서.

어떤 주인도 섬기지 않지만...

혼자다.

굴단은 자신의 힘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힘은 가늠했다. 한참을 그렇게 무덤 안에 서서, 그는 생각하고, 계산했다.

방 안 바위들이 흔들거렸다. 카드가가 구멍을 뚫고 안으로 들어왔다. 마이에브가 초승달 모양 검을 꼬나들고 그 뒤를 따랐다.

둘은 함께 굴단을 향해 달려왔고, 그는 지켜보기만 했다. 둘이 공격했지만, 굴단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두 떨쳐 버렸고, 적은 방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마이에브는 공중에서 빙글 돌아 우아하게 내려앉았고, 카드가는 점멸한 후 바닥에 내려섰다. 그들은 다시 덤벼들었다. 이번엔 굴단도 움직여야 했다. 마이에브의 칼이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그의 목을 빗나갔다. 카드가는 얼음을 쏟아내렸다. 굴단이 박수를 치자, 초록색 불의 장벽이 격돌했다. 카드가는 벌레처럼 짓이겨져야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도약했다. 감시관 섀도송도 다시 그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다. 굴단은 손을 뻗어 그녀의 영혼을 뜯어내려 했지만, 카드가가 굴단의 힘을 뒤틀어 마이에브가 물러설 수 있게 도왔다.

“가르쳐 다오.” 굴단의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이상하게 침착했다. “왜 싸우는 거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죽는 것뿐인데.”

“죽여 봐라. 할 수 있다면.” 카드가가 말을 뱉었다.섀도송도 두 발을 단단히 디딘 채 검으로 기둥을 두 번 때려 말 없이 동의했다.

굴단은 의심할 여지 없이 둘 다 처치할 수 있었다. 이미 죽었어야 하는 자들이었다. 그 고집스러운 저항은 굴단이 이 세계에서 거듭해서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다. 카드가와 섀도송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혼자서 모두 처치할 순 없어.

굴단은 이자들을 처치할 수 있었다. 불타는 군단에게 복종할 수도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끙 하는 소리와 함께 굴단은 경이로운 힘을 손에서 놓았다. 킬제덴이 그걸 붙잡아 무덤으로 보냈다. 사방의 벽이 정오의 태양처럼 환하게 빛났다.

굴단은 날카로운 상실감을 느꼈다. 모든 힘이 사라졌다. 무덤은 힘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모하고 있었다. 끔찍한 소리, 장엄한 소리, 귀를 멀게 하는 소리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생성되었음을 알렸다. 갑작스럽게 그 통로가 열렸다. 다른 존재의 차원에서 바람이 밀려들어, 돌풍과도 같은 속도로 방을 휩쓸었다. 카드가와 마이에브는 쓰러져서도 버텼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 잘했다, 굴단. 바랐던 대로 넌 미래를 볼 줄 아는구나.—

킬제덴의 말이 이제는 머리를 울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굴단은 불타는 군단에게서 무언가 다른 걸 느꼈다. 신뢰였다. 아찔한 감정이었다.

“이제 뭘 합니까?” 굴단이 물었다.

— 지켜봐라. 네가 뭘 물려받을지 봐라.—

킬제덴은 굴단을 끌어올려 군단의 영광을 목격하게 했다.

무한한 어둠에 빛이 스며들어, 수많은 병력을 비췄다. 시선이 닿는 곳 모두를 채운 병력은 준비를 마친 후였다. 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길이 없었다. 지금과는 달랐다. 소용돌이치는 힘이 그들을 다른 세계로 인도했고, 모두가 기꺼이 따랐다.

“꿈꿨던 것 이상입니다.” 굴단이 속삭였다.

— 아제로스의 종말이 시작된다.—

거기 아제로스가 있었다. 그리고 불타는 군단의 병력이 쇄도하는 곁에 굴단이 섰다. 군단은 계속해서 전진했다. 곧 그도 합류할 것이다. 하수인이 아니라...

... 지도자로서.

카드가의 심장이 귀 안에서 두근거리며, 실체화된 악몽을 씻어냈다. “계속 가시오, 마이에브.” 그는 계속 달리며 소리쳤다.

그녀는 계속 달리며 대답은 하지 않았다. 더 할 말도 없었다.

불타는 군단이 왔다.

굴단이 눈 앞에서 사라지고, 그 즉시 다른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적이 너무 많았다. 카드가와 마이에브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군단이 벌써 그들을 뒤쫓고 있었다. 카드가는 뒤도 돌아보지 못했다. 사방의 벽이 빛나며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굴단은 카드가가 보는 앞에서 다섯 개의 봉인을 파괴했고, 잠자던 차원문이 깨어났다.

봉인을 다시 만들 순 없어. 카드가는 절박했다. 거기에 필요한 힘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달렸다.

앞쪽 출구에서 햇빛이 쏟아졌다. 마이에브가 먼저 도착하여 북쪽을 향해 돌아섰다. “난 금고로 돌아간다! 적을 유인해!”

카드가는 동쪽으로 향했다. “행운을 빌겠소!”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그는 두 팔을 넓게 펴고 까마귀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고, 마법을 집중시켜 찬란한 빛과 소리를 내뿜었다.

효과가 있었다. 찢어지는 포효의 화음이 등 뒤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뒤를 돌아보았다. 지면은 이미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병력의 선봉대로 뒤덮여 꿈틀거렸다. 섬에서 솟아 오르는 거대한 초록색 연기에 가려져 하늘도 어두워졌다. 거기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 불지옥의 가운데에 굴단이 떠 있었다. 그의 웃음이 공포스러운 존재들을 반겨 맞았다. 그는 카드가를 가리켰다. 날개 달린 악마 떼가 그의 명을 따랐다. 카드가는

한껏 속도를 냈다. 군단의 병력은 치열하게 그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면 마이에브와 감시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다.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다. 엄청난 패배 가운데 작았지만 그래도 승리였다.

그는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제는 마이에브도, 카드가도, 굴단까지도 문제가 아니었다.

군단을 막을 방법이 있을 것이다.

카드가는 실패했다. 답이 필요했다. 도움이 필요했다. 여기 있어 봐야 죽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날았다. 부서진 섬을 등지고 공해상에서 솟아 오르는 사이에도 악마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카드가는 키린 토에게 경고를 하고 싶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에게도. 모두에게도. 다들 마이에브처럼 부름에 응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다. 아제로스의 그 누구도 혼자서는 떨쳐내지 못할 악몽이.

끝

©201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 에게 있습니다. Legion 은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이며, World of Warcraft 와 Warcraft 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 입니다.